

社說

연구풍토 조성으로 학문발전 기해야

— 학문·학파조성의 심화를 위한 제언

캠퍼스도 아름다운 꽃들이 다무어 피듯하여 창으로 아름답고 그윽한 분위기에 젖는다. 청순한 목련화, 찬란한 벚꽃, 수줍은 진달래와 화사한 개나리가 우리들의 온갖 시름을 씻어줄것 같다. 그러나 차가운 현실은 주변 곳곳에 화염병 흔적을 지우지 않고 있으며 독한 최루탄 냄새가 코를 찌르고 마구 흐르는 눈물은 이 시대의 아픔을 말하는 듯 하다.

이 상반되는 두 현상속에서 우리는 이시대의 역할을 절감한다. 어쩌면 학문을 이과가 한다는 것이 공허로운 노감까지 줄지 모르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이 척박하더라도 학문의 고유한 영역과 존엄을 보존되어야 한다는 당위는 결코 흔들릴수 없다.

상해라고한다. 만일 18학점을 수강하는 학생이 몇 최소한 36시간을 학과목에 투자해야한다. 그렇듯 수업시간에 들어가는 시간 외에 각학생은 하루 최소한 5시간 정도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연구야말로 교수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어쩌면 학문하는 사람의 최종적 존재의미는 연구 활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 저서, 논문, 발표가 이루어지며, 이는 곧 수업의 수준을 올리고, 학계에 공헌하며, 세계 문화의 창달을 가져 오는 확실한 길이다. 물론 개인의 연구활동 못지 않게 연구소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겠으며, 그를 위한 연구비의 지원 또한 절실하다.

왜냐하면 대학의 사회에 대한 봉사는 궁극적으로 학문연구의 축적을 통해서이며 행동주의를 통한 개혁은 부차적인 입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대가 하 수상하고 사회의 모순과 비리가 극심할때는 대학이 결코 침묵만을 지키는 방관자일 수만은 없다. 그러나 역시 사회 참여는 어디까지나 시대상황적인 것이며 대학의 본원적 임무는 연구에 있다. 올바른 학문의 축적과 연구풍토 조성 없는 사회비판은 끝내 허구일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연구를 뒷받침해야할 자료와 시설·실험기, 도서관의 확보 또한 시급하다. 세계적 학술정보 교류를 위해 중앙 메인 컴퓨터와 LAN망 설치가 서둘러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컴퓨터 기초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내의 논문 석박사학위논문초록, 국내외전기간행물과 신문 및 각종 국제적구도 도서관의 도서목록등이 신속히 입수되어야 할것이다.

우선 학풍조성의 쇄신을 위해 대학구성원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줄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일관 수업을 학사 일정과 업무의 엄격한 집행이 이루어져야겠다.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 참여해야 함을 물론, 수업준비에 후진의 정열을 발휘해야겠다. 일반적으로 한학점당 2시간의 공부시간을 할당하는것이

학문은 결국 현실을 한발자욱 앞서는 속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학문이 현실성, 실제적 이용도만을 위해 존재 한다면 끝내 학문은 현실에 매몰되고 말것이다. 그점에서 학문은 개별적이고, 개척적이며, 때로 고립적이기까지 하다. 의양의 화려함이나, 단기적효과, 정치적속물성은 추구하는 것은 학풍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독소이다. 단일한 연구의 답습이나 모방은 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다.

대학이 '불법...'에 희생되어야 하는가

— 경찰의 학원난입을 보며

대학에서는 '학문·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들 한다. 이런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절화, 결사...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외의 전횡'을 통해 민주분과와 학생 운동등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학내투입이 빈번해졌다. 대학조차도 그들의 허수아비가 되려는 군화발 아래 두라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5, 16일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상영한 본교 서울캠퍼스는 정권의 자기모순적 파인 행동에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

직접관과 들 등에 맞아 다친 학생만 30여명, 그의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학생수는 훨씬 많다. 30대의 전경차, 1천5백여명의 전투경찰과 사복체포조(백골단), 7대의 페퍼프그자, 군대식의 표현을 빌자면 '군사작전'과 다를 바가 없다.

갈지않은 대학의 역사에서 현실과 정치, 사회가 부정적인 현상을 보일때 대학에서부터 정적 한 모습과 실질을 보였던 점을 우리는 기억한다. 대학이 현실에 대해 실천적인 물음과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해온 점이 파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경화'의 이름을 가진 누구도 정권에 의해 깃발한 학원에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피가 뜨거운 청년학생은 부정부패한 정권과 그 허수아인 경찰에게 침탈당한 교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대학의 그 누가 경찰의 학내투입을 묵도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형식적인 이유로 공영윤리심의위원회 '사건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필름의 '입수'수색영'까지 발부한 상태로 경찰을 투입했다.

법률준항 한두가지에 끼워맞춘 '불법성명'을 빌미로 학원에 난입한 이유는 어찌구무가 없다. 대학이 그들의 혼란장이 아닌 배아법적준조차 예매한 영화때문에 수업이 진행중인 문리대 건물앞까지 경찰이 진입한 사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정권이 빌미로 삼고있는 불법성명, 불법집회는 어떤 것인가. 사법부와 경찰을 폭력으로 장악한 정권이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시 법에 호소하는 것에 다를 바가 없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법과 경찰 또한 자신의 올바른 위치를 가져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대학은 예매한 필름과 정권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폭력적이고 부패한 정권이 대학의 권위에 도전하는가.

한국언론의 북한에 대한 편향적 보도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통일문제에서부터 근래의 '핵사찰'문제에 이르기까지 다른 분야에서는 보도태도에 있어 비교적 형평을 유지하려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엿보이나 오직 남북보도에 있어서는 기존의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의 신문매체들이 가장 비중있게 다루었던 구체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양일보 4월18일자 9면, 진면면진) "북한 핵사찰 먼저 해결해야 한다(서울신문 4월18일자 5면 머릿기사)" "북한에 핵사찰 수용추구(조선일보 4월18일자 1면 머릿기사)" 등 일일이 예를 들기 벅할 정도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외에도 시월및 각종 기고문을 통해 서 북한의 핵사찰에 관한 문제들을 맹비난하고 있다. 각사의 실정과 편집성격

소하려는 실정이며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핵사찰을 받아들이야 하는 물론 핵무기개발을 즉각 중지해야만 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지금의 추세라면 북한이 향후 몇 년안에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리라는 예측은 사실로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핵무기보유가북한

"북한을 악마로 만들지 말라"는 제목의 이 사실은 북한을 위협하는 강경책을 사용하는 것 보다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더 나은 대응방안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를 일부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결론적으로 고립강경책은 오히려 한국의 강경파를 부추기고 '북한의 야심'을 자극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이 글이 부르조아 자유주의적 언론이라 지칭되는 이른바 미국식 언론관에 입각해서 집필된 글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아와'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했을때 좀더 넓은 시야, 다각적인 가능성을 예견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수 있다는 너무나 일반적인 명제를 이 사실은 재확인 시켜주고 있다.

당부하건대 앞으로라도 '편파보도' '관변보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주시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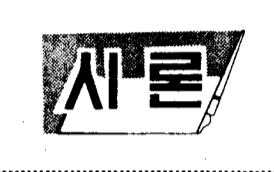


반공논리로 경직된 '핵사찰' 보도

이 약간적은 차이가 있었으나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 신문들에서의 기사로서 차지하는 비중과 게재 빈도와 내용에서 대동소이하다는 것인데,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북한은 신데타트 울신문 4월15일자 15면 머릿기사)을 시작으로 "핵사찰 압력-북한사면초가(중

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국내의 비판적 여론과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및 각종 제안을 일단 차치하더라도 지난 18일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서 각각 인용해서 기사화한 '뉴욕 타임즈'의 17일자 사 조양에 전혀 부응치 못한 상태에서 점차 고당되는 위기의식을 핵무기개발로 해

미국의 제3세계 전략변화



패만전쟁이후의 국제질서 개편은 과연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강대국간의 힘의 균형에 의한 세계 질서의 유지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발판으로 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체제로 바뀌고 있는가. 이런 전쟁에서 드러났듯이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소련을 제치고 전쟁을 주도하였던 미국의 대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초 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될 것인가. 현재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상하여 결론짓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번 전쟁에서 드러났듯이 분명한 사실은 이른바 탈냉전(Post Cold War) 이후 미국의 제3세계전략이 일정정도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패만전쟁의 배경이 되었던 군사전략 개념인 중강도 전쟁(MC: Mid Intensity Confilots) 전략 개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중 강도 전쟁이란 소련을 적으로 하는 고강도 전쟁과 제3세계 혁명적 개입에 대한 반혁명전쟁인 저강도전쟁(LIC: Low Intensity Confilots)의 중간 규모 전쟁으로 1980년 미국 군부내에서 반미적인 제3세계 강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합의된 군사전략 개념이다. 이러한 중강도 전쟁 개념이 형성되고 실천에 적용된 배경에는 저간의 미국 자국내의 정치경제 현실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

1989년 미-소간의 몰타 회담을 전후로 하여 국제 정치적으로 탈냉전의 흐름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 미국의 국내 경제는 침체 무렵이 되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70년대 후반부터 계속되어 왔던 무역

화물, 대내적으로는 군비 감축을 주장하는 자국민들의 압력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전변적 상황 가운데서 미국은 경제 위기의 극복과 국제적 위상의 격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불력의 외해를 저지할 수 있는 소련을 대신한 '새로운 위협세력'의 창출이 절실하게 필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새로운 악마의 얼굴'로 내세운 것이 반미적 성향의 제3세계 지역 강대국이다. 이러한 구도는 더욱과 같은 1990년 '국제안보보장전략'의 내용에서 단적으로 드

도르 등지에서 대공산 개발과 지원내지는 나카라과에서와 같이 민족혁명군가의 반란에 대한 행정이 이에 해당한다. 레이건 행정부는 후기에 들어와 이런 '저강도 전쟁'개념을 확대, 특전단을 확충하고 육군에 4개의 경보병사단을 증설했다. 해군은 수륙양용작전 능력을 30% 강화했으며, 공군은 대륙간 공수능력을 제고 시켰다. 이러한 와중에서, 미 국방부의 '저강도전쟁'에 관한 전략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새로운 교본과 지침이 마련되었는데 '중강도전쟁'

념을 유감없이 실현한 패만전쟁을 계기로 하여 일차적으로 중동에서, 유럽에서의 군축으로 야기된 군사적 여력을 배치할 수 있는 명분을 잡았다. 물론 현재 미국은 사우디, 이집트, 시리아 등 친미 아랍인명을 중심으로한 지역안보체제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이라크 이외에 제3세계권에 속하면서 군비증강을 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리비아, 시리아, 인도, 이란, 북한 등을 지목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 입안자들은 이들 국가들의 일부가 범세계적인 집단 무기의 확산, 특히 비재래식 탄도미사일의 확산으로 인해 인근의 반미 국가와 함께 공적으로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간주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이들 국가들을 중강도전쟁의 대상으로서 제2, 제3의 이라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탈 냉전화의 역기류

남·북 대립구도, 미 군사불력 유지 명분 지역분쟁 지원에서 적극 개입 선회

~9월의 최종이익이 4~5월에 비해 29%나 감소했다. 이러한 금융계의 약화는 기업의 자금난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와 맞물려 나타난 것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의 상대적 격하였다. 즉 미국과는 달리 경제성장 가도를 걸어왔던 EC와 일본의 국제적 지위의 상승은 제2차 대전 이후 형성되었던 미국중심의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위협하여 미-EC-일본이라는 다국화 체제로의 이전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특히 코르바 초프가 주도한 탈냉전의 기류는 미국 경제력의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사복합체까지 불황으로 빠지게해 자본주의권내에서의 미국의 입지 축소, EC, 일본의 입지 확대 라는 새로운 국제판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몰타체제의 형성으로 대외적으로 대소 방위 명목으로 구축되었던 미국 중심의 군사불력의 약화와 그에 따른 불력 가맹국들에 대한 영향력 약

러났다. "우리는 (국제질서의) 변화를 환영한다... 새로운 시대에 (미국의 영향력 행사) 필요성은 변화되었지만 국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책임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군사력이 행사될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는 소련이 아니라 제3세계일 것이다" 미 육군 참모총장 알 부노는 "육군은 나토 중심의 정적인 배치 상태에서 제3세계의 강력한 군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동적인 비상군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국제안보보장전략'의 내용을 뒷받침하였다. 요는 바로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중강도전쟁 개념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찌기 미국은 80년대 초부터 '저강도전쟁'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왔다. '저강도전쟁'은 레이건 행정부가 제3세계의 지역분쟁에 관심을 쏟으면서 구축된 전략 개념이다. 이를테면 필리핀, 엘살바

박은홍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연구원)



텅빈 가슴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 '91 새내기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사이공의 흰옷

한 평범한 소녀에 불과했던 주인공이 현실과 만나면서 투쟁에 뛰어들어 체포와 가혹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는 강고하고 성숙한 운동가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을 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경제사 강의

이 책은 단순히 역사 과정에 사용되는 경제적 조건들을 해명하는 데 머물렀던 기존 경제적 교본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인류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다.

철학에세이

이 책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철학이란 머무는 철학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철학, 어려운 철학이 아닌 활용하는 철학, 해석하는 철학이 아닌 만드는 철학이라는 인식하에서 그것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하는 의문의 추구과정에서 나온 조그만 결실이다.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대학이 출세의 지름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신입생에게 이 책은 이제까지 교육받아 온 것들을 재검토하고 대학과 대학생활의 의미, 대학생으로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다.

노동의 새벽

극도로 절제된 서정성과 섬세한 묘사력으로 참담한 현실의 벽을 뚫고 새로운 세계를 펼쳐보인 최초의 본격 노동자 문헌으로서 이 시집은 민중문학의 고전이 되었다.

바로보는 우리역사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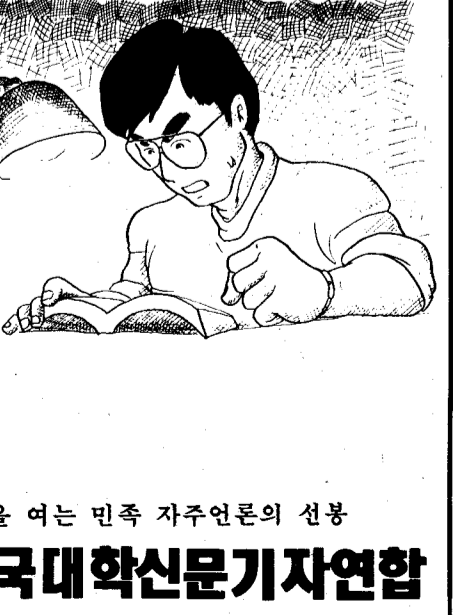
원시 공동체 사회로부터 80년대까지 '권력자'의 관점이 아닌 압박받고 탄압받던 민중의 관점에서 기술된 역사책이다. 고등학교교과까지 받아왔던 주입식 역사교육이 얼마나 왜곡되었던가를 알 수 있다.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남북한 어느 한쪽만 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외세의 관계속에서 민중의 삶과 투쟁을 가늠해 본 한국현대사 1권은 해방이후 한국전쟁까지, 2권은 휴전에서 10-26까지.

검대기를 벗고서2

사회 민주주의자들이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주는 글 모음집이다. 이젠까지 가졌던 대학에 대한 환상을 깨고 대학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의 고민을 던져주는 책



세상을 여는 민족 자주언론의 선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